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분석*

기 광 도*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형태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의 형태 중에서 결손가정에 초점을 두고 양친가정과 결손가정 자녀들의 비행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양친가정과 결손가정에서 청소년 비행에서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과정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2001년 10월에 서울시내 11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분석대상자는 1,004명의 일반 중·고등학생이다. 또한 결손가정이 가정의 양육방식 및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인과 및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ANOVA), 상관관계와 회귀분석, 경로분석(path analysis) 등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양친가정의 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손가정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효과와 자녀양육을 매개로한 간접효과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결손가정으로 인하여 파생된 가정문제 및 적절한 자녀양육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결손가정 자체의 문제보다는 결손가정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및 사회화 등의 문제가 청소년 비행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결손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한다면 자녀의 비행이 줄어들 수 있으며, 또한 양친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자녀의 비행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 주제어 : 가정환경, 결손가정, 청소년 비행, 범죄, 자녀양육

* 이 논문은 2006년 대구대학교 학술지원금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사회학박사

I. 머릿글

우리 사회는 지난 50여 년 동안 산업화 및 도시화 등을 통하여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가족과 관련되어서도 나타났으며, 가족의 구조 및 역할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이혼의 증가로 그동안 정상적인 형태의 가정으로 인식하였던 양친가정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이혼과 더불어 맞벌이부부, 주말부부, 재혼 등이 증가함으로써 전통적인 양친부모에 의한 가정과는 다른 한부모 가정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정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인식하였던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양친가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른바 전통적 가정의 ‘해체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학의 영역에서 가정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를 발생시키거나 통제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은 가정의 형태와 가정의 역할로 구분되어 다루어졌다. 특히 가정의 형태 측면에서는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양친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즉 부모 중 한편이 부재하는 ‘결손가정’에서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의 차이가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다. 대체적으로 양친가정보다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범죄를 더 저지를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가정의 역할 측면에서는 가정의 자녀양육방식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정에서 적절하게 자녀양육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의 비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와 같이 결손가정과 같은 가정의 구조적 형태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과 같은 가정의 역할 모두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형태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정의 형태 중에서 결손가정에 초점을 두고 양친가정과 결손가정 자녀들의 비행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양친가정과 결손가정에서 청소년 비행에서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과정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결손가정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자녀양육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II.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일반적으로 가정(family, home)은 결혼이나 혈연에 의하여 부부와 자녀, 그리고 근친에 의하여 구성된 생활공동체로 정의된다. 사회적 기관으로서 가정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 사회화, 사회통제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가정은 자녀에게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삶의 자원 및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사회규범을 내면화시키고, 비행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하여 일탈을 억제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인습적 가치 및 질서의 수용 및 순응행위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가정의 기능은 자녀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대체로 부모에게 주어져 있다(Parsons and Bales, 1956).

가정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의한 부부와 출산이나 입양 등에 의한 자녀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가정의 형태는 부모 및 근친과의 공동생활양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부모와 자녀에 의하여 구성된 가정을 '양친가정(intact home)'이라고 한다. 그에 비하여 부부의 이혼, 별거, 사망, 재혼 등으로 인하여 생물학적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한편이 부재한 가정을 '결손가정(broken home)'이라고 한다.¹⁾ 가정에서 부모 중 한편의 부재는 가정의 역할을 수행할 보호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가정에서 보호자의 부재는 자녀양육이나 사회화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아버지는 밖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로 보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보호, 사회화, 행동통제 등을 책임

1) 그러나 최근에는 결손가정이라는 용어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폐기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이나 '대안가족'이라는 용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부모에 의한 조손가정, 부모가 없는 소년가장가정 등도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손가정이라는 용어가 비록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더라도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양친가정과 대비하여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지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 중 한 편의 부재는 가정의 경제적 터전과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의 부재는 가정의 경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어머니의 부재는 가정에서의 양육과 보호, 그리고 사회화 및 통제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Monahan, 1957; Sterne, 1964; Rosen, 1985; Wells and Rankin, 1986). 이와 같이 결손가정은 부모의 한 편의 부재로 인하여 양친가정에 비하여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 사회화, 그리고 행동통제에 대하여 열악할 것이라고 인식되었다.

결손가정과 비행 간의 관계는 미국 범죄학의 형성과정부터 활발하게 다루어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계급과 범죄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과 유사하게,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거리를 제공하였지만 학문적으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상호간의 비판과 논박이 지속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결손가정은 이혼, 별거, 사망 등으로 인한 편부모 가정이며, 이러한 결손가정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어려움 및 가정갈등의 심화, 부모와의 정서적 애착과 유대감의 약화, 사회화 역할모형의 부재, 자녀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적 통제 및 훈육의 부족,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대한 감독부재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적 요인들이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양친가정의 자녀보다 비행 및 범죄를 더 저지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근거하여 결손가정과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비행이 양친가정보다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Weeks and Smith, 1939; Monahan, 1957; Browning, 1960; Morris, 1964; Rosen, 1969).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서 1950-60년대까지는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이와 같은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이전의 연구는 주로 국가의 공식통계와 경찰 및 교도소의 교정시설에 수용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및 분석방법 등의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자기보고식 조사에 의한 연구들은 결손가정과 같은 가정의 구조적 형태보다는 가정의 갈등과 같은 가정의 역할이 청소년의 비행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Berger and Simon, 1974; Hennessey et al., 1978; Canter, 1982). 이러한 연구들은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고,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가정의 형태보다는 가정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랭킨(Rankin, 1983)은 이러한 연구에서의 표본, 결

손가정과 비행의 측정, 연령과 성 간의 상호작용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결손가정의 개념을 명료화시키고, 결손의 유형 및 기간에 따라 정교하게 분석한 후 결손가정이 자녀의 비행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결손가정과 같은 가정의 형태를 강조하는 견해는 점차 약화되었다. 미국에서도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이혼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통적인 양친가정은 더욱 줄어들었고, 이 상황에서 결손가정이 청소년 비행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웰스와 랭킨(Wells and Rankin, 1991)은 그동안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에 대한 50개의 경험적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두 현상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와 같이 결손가정과 자녀의 비행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의 문제가 제기되자, 결손가정이 자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가정의 분위기 및 관계, 가정의 역할 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Patterson, 1982; Hirschi, 1983). 이후의 연구들은 결손가정과 같은 가정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거나, 가정의 구조를 무시하고 가정의 기능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가정의 구조 기능간의 상호작용이나 매개관계를 통하여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Rosen, 1985; Sampson and Laub, 1995).

결손가정과 같은 가정구조와 자녀양육 등 가정의 역할이 서로 연관되어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미국 범죄학의 초기에도 제기된 바 있다. 쇼우와 맥케이(Shaw and Makey, 1932)는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의 결손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두 현상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가정의 형태와 더불어 가정의 관계 및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을 제안하였다. 글릭 부부(Gluck and Glueck, 1950)는 비행에 있어서 가정의 구조와 가정의 기능적 요인을 모두 강조하였다. 그들은 가정의 기능을 부모의 훈육, 어머니의 감독, 부모의 애정, 가정의 결집력 등으로 파악하고, 엄격하지만 변덕스럽거나, 또는 너무 관대한 부모의 훈육, 자녀의 잘못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감독 등이 자녀의 비행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나이(Nye, 1958)는 가정의 구조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다루었다. 그는 결손가정과 부부간의 행복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양친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간의 행복지수가 높을수록 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그러나 결손가정과 청소년비행 간의 관계에 대하여 이론적 측면에서 체계화시키려는 노력은 웰스와 랭킨(Wells and Rankin, 1986)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그들은 가정과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손가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결손가정모형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방법론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가정은 자녀의 사회화 및 인성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며, 사회규범을 사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결손가정과 비행 간의 관계를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구조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사회화의 측면에서 결손가정은 적절한 모방모형, 사회화 역할모형, 정서적 유대, 의사소통 등에서 결함을 보이기 때문에 양친가정보다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통제의 측면에서 가정은 사회의 규범과 법을 준수하게 하는 기관이다. 가정은 사회화뿐만 아니라 통제 및 처벌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정에서 지켜야할 규범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규범을 준수케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정은 규정, 감시, 감독, 처벌 등의 사회통제를 한다. 결손가정에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는 양친가정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가정은 개인의 물질적 생활을 반영하는 사회경제적 단위이며, 이는 그 가정에 속한 자녀의 교육기회, 직업 등을 결정한다. 문화적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계를 위치지우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결손가정은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지원, 관심, 사회화, 통제 및 감독 등이 양친가정에 비하여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의 비행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을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사회화, 사회통제 등의 측면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였다. 이후 이러한 견해에 근거한 결손가정과 비행 간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자녀양육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Rebellon, 2002; Demuth and Brown,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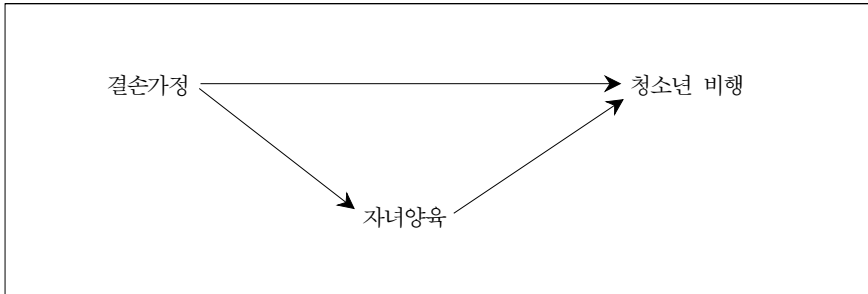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는 경험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국내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는 가정적 환경보다는 또래집단이나 친구관계, 학교 등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가정환경이나 자녀양육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김준호·김순형, 1995; 김준호·김선애, 1996; 정기선·민수홍·이희길, 2001; 이성식, 2003; 기광도·이희길, 2004; 전영실, 2007).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정의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는 독립된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가정환경의 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분석됨으로써(김준호·김순형, 1995; 이성식, 2003; 기광도·이희길, 2004; 유안진·이점숙·서주현, 2005; 전영실, 2007), 체계적으로 연구된 것은 매우 적은 편이다(김행자, 1977; 정소희, 2006).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를 자녀양육의 매개과정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은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결손가정은 직접적으로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자녀양육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즉 결손가정은 자녀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자녀양육방식이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 및 매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결손가정이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 및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모형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2001년 10월에 서울시내 11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조사대상 학교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강남과 강북지역에서 선정하였다. 중학교는 4개교를 선정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남자고등학교 2개교, 여자고등학교 2개교)와 실업계 고등학교(3개교)가 모두 포함되도록 선정하였다. 중학교에서는 한 학년에서 하나 또는 두 학급을 선정하였고,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과 2학년에서 한 학년 또는 두 학급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학급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1,012명의 일반 중·고등학생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부실한 8개를 제외하고 1,004명을 분석에 포함시켰다(정기선·민수홍·이희길, 2001).

결손가정이 가정의 양육방식 및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인과 및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ANOVA), 상관관계와 회귀분석, 경로분석(path analysis) 등을 사용하였다. 변량분석을 통하여 양친가정과 결손가정에서의 청소년 비행의 차이, 결손가정 중 편모가정과 편부가정에서의 비행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은 결손가정과 자녀양육, 그리고 청소년 비행간의 전반적인 관계양상 및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경로분석은 결손가정과 자녀양육, 그리고 비행간의 매개 및 인과효과를 밝히는데 사용되었다. 상관관계분석은 각각의 변인간의 개별적인 관계를 살펴볼 수 있지만, 회귀분석은 여러 독립변인들이 하나의 독립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경로분석은 변수간의 인과 및 매개효과를 밝히는데 사

용되었다.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이 서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방정식에 포함되어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지만, 경로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가 설정되고 그러한 관계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변수들 간의 이론적 관계에 대한 검증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Fox, 1991).

3. 변수의 측정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결손가정은 양친가정과 결손가정, 그리고 결손가정은 다시 편모가정과 편부가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녀양육은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및 의사소통,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 그리고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적정성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은 지위비행과 심각한 비행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통제변수로서 가정의 측면에서는 경제적 수준, 자녀의 측면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변수의 척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형태는 양친가정과 결손가정으로 구분하였다. 양친가정은 생물학적 부모와 같이 사는 가정이며, 결손가정은 생물학적 부모 가운데 한 편이 부재한 가정으로 구분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편을 1, 잘 사는 편을 5로 할 때, 응답자의 가정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로 파악하였다. 자녀양육 가운데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은 부모에 대한 존경이나 믿음 등으로 파악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학교생활 및 장래 등에 대한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의 정도로 파악하였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은 집 밖에 있을 때,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등에 대한 파악정도로 측정하였고,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은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일관되고, 연관성 있으며, 적절한 정도로 제재를 하는가로 파악하였다.²⁾

2) 척도에 사용된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은 (1)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 나는 아버지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한다, (3) 나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 나는 어머니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4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4개의 문항에 대한 산술적 합으로 측정하였고,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1) 나는 나의 장래에 대해 부모님과 상의하는 편이다, (2) 나는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님과 자주 이야기한다, (3)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그리고 청소년 비행은 12-20세의 청소년들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지위비행이나 질서 위반, 형법위반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은 지위비행과 심각한 비행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지위비행은 청소년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비행은 지난 1년 동안 술집 출입, 흡연, 무단외박, 무단결석, 비디오방 출입, 포르노물 보기, 채팅을 통한 음란한 대화를 한 경험 등의 7개의 행위로 측정하였다. 심각한 비행으로는 지금까지 타인의 폭행, 위협이나 폭력으로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 흥기 소지, 상점절도, 다른 사람의 현금이나 물건 절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물건이나 돈을 얻기, 학교시설이나 공공시설 부수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기 등의 8가지의 행위를 한 경험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비행의 측정은 분석에서는 비행여부나 비행을 저지른 횟수보다는 비행성향에 초점을 두고 측정하였다. 그리고 지위비행과 심각한 비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이유는 비행유형간의 관계양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비행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IV. 분석결과

1. 자료의 일반적 특성

결손가정이 자녀양육과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주요 변수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결손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은 조사된 1,004명 가운데 833명(82.9%)이고, 결손가정은 168명(16.8%), 무응답 3명(0.3%)으로

얘기한다는 3개의 문항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부모에 의한 자녀행동에 대한 감독은 (1) 집 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 (2) 집 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아신다, (3) 집 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신다, (4) 집 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알고 계신다의 4 문항으로 파악하였고,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의 적정성은 (1) 부모님은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별로 상관 않고 넘어간다, (2) 부모님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규칙을 정해준다, (3) 부모님은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꾸중이나 벌을 주신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청소년이 585명(58.3%), 여자청소년 418명(41.7%)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에는 12세 33명(3.3%), 13세 122명(12.2%), 14세 138명(13.7%), 15세 183명(18.2%), 16세 309명(30.8%), 17세 214명(21.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어려운 편이다 33명(3.3%), 다소 어려운 편이다 159명(15.8%), 보통이다 511명(50.8%), 다소 여유있는 편이다 249명(24.8%), 잘 사는 편이다 53명(5.3%)으로 나타났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특성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α 값
결손가정 ¹⁾	0	1			
경제적 상황	1	5	3.13	.85	
성별 ²⁾	0	1			
연령	12	21	16.76	1.44	
애착	4	16	12.56	2.95	.76
의사소통	3	12	7.63	2.54	.80
감독	4	12	8.51	2.28	.79
처벌	3	12	8.83	1.83	.47
지위 비행	0	21	3.71	4.55	
심각한 비행	0	24	3.16	4.24	

1) 결손가정, 0 : 양친가정, 1: 결손가정; 2) 성별, 0: 남자, 1: 여자

그리고 자녀양육에 속하는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 그리고 비행 등에 대한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에 대한 척도는 최저값이 6, 최고값이 24이고, 평균이 18.54, 크론바하의 α 값은 .91로 나타났다. 이러한 척도의 값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이 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정도에 대한 척도는 최저값이 3, 최고값이 12이고, 평균이 7.63, 표준편차가 2.54이며, 크론바하의 α 값은 .8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척도의 값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에 대한 척도는 최저값이 4, 최고값이 12이고, 평균이 8.51, 표준편차가 2.28이며, 크론바하의 α 값은 .79로

나타났고, 척도의 값이 높을수록,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시는 엄격한 것을 뜻한다. 그리고 자녀의 잘못에 대한 부모의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척도는 최저값이 3, 최고값이 12이고, 평균이 8.83, 표준편차가 1.83이며, 크론바하의 α 값은 .47로 나타났으며, 척도의 값이 높을수록, 자녀의 잘못에 대한 부모의 처벌이 적절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종속변수가 되는 지위비행의 경우는 최소값이 0, 최고값이 21, 평균이 3.71로 나타났으며, 심각한 비행은 최소값이 0, 최고값이 24, 평균이 3.16으로 측정되었다.

2. 결손가정에 따른 청소년 비행

결손가정의 여부 및 유형이 자녀의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결손가정여부가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결손가정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표 2>는 가정의 형태, 즉 결손가정과 양친가정에 따른 청소년 비행에 대한 변량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청소년의 경우, 양친가정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정도는 3.41이며,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5.26으로 나타났고, 심각한 비행에서는 양친가정 3.08, 결손가정 3.73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양친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지위비행을 더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심각한 비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가정형태에 따른 비행정도

		사례수	지위 비행		심각한 비행	
			평균	F 값	평균	F 값
전체	양친가정	833	3.41	23.62***	3.08	3.29
	결손가정	168	5.26		3.73	
	소계	1001	3.72		3.19	
남자	양친가정	496	4.35	15.83***	3.76	4.62*
	결손가정	88	6.57		4.90	
	소계	584	4.69		3.93	
여자	양친가정	336	2.02	16.94***	2.09	0.86
	결손가정	79	3.86		2.48	
	소계	415	2.37		2.18	

* : $p < 0.05$, ** : $p < 0.01$, *** : $p < 0.001$

이러한 결손가정에 따른 비행의 차이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결손가정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위비행의 경우, 양친가정의 남자청소년들은 비행정도가 4.35, 결손가정에서는 6.57로 나타났으며, 심각한 비행에서도 양친가정 3.76, 결손가정 4.90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청소년의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양친가정 2.02, 결손가정 3.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심각한 비행의 경우에는 비록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결손가정의 유형에 따라 자녀의 비행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3>은 결손가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청소년 비행정도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전체청소년의 경우, 지위비행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양친가정은 3.41, 편부가정은 6.55, 편모가정 5.73, 조손가정 등의 기타 가정 2.62로 나타났으며, 심각한 비행에서도 양친가정 3.08, 편부가정 5.58, 편모가정 3.69, 기타가정 1.97로 나타나,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손가정 중에서 편모가정보다 편부가정의 청소년들이 비행을 더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결손가정유형에 따른 비행정도

		사례수	지위 비행		심각한 비행	
			평균	F 값	평균	F 값
전체	양친가정	833	3.41	13.39***	3.08	5.42***
	편부가정	36	6.55		5.58	
	편모가정	97	5.73		3.69	
	기타 가정	35	2.62		1.97	
	소계	1001	3.72		3.19	
남자	양친가정	495	4.35	13.35***	3.76	5.58***
	편부가정	23	8.52		6.95	
	편모가정	48	7.39		5.00	
	기타 가정	17	1.64		1.88	
	소계	584	3.69		3.93	
여자	양친가정	366	2.03	5.92***	2.09	0.49
	편부가정	13	3.07		3.15	
	편모가정	49	4.10		2.41	
	기타 가정	17	3.76		2.17	
	소계	415	2.37		2.16	

* : $p < 0.05$, ** : $p < 0.01$, *** : $p < 0.0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양친가정 4.35, 편부가정 8.35, 편모가정 7.39, 기타 가정 1.64로 나타났으며, 심각한 비행의 경우에는 양친가정 3.76, 편부가정 6.95, 편모가정 5.00, 기타 가정 1.88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청소년의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양친가정 2.03, 편부가정 3.07, 편모가정 4.10, 기타 가정 3.76으로 나타났으며, 심각한 비행의 경우에는 편부가정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가정의 형태, 즉 양친가정과 결손가정, 그리고 결손가정 중에서 편부가정과 편모가정에서의 청소년비행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양친가정보다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지위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각한 비행에서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손가정 중에서 편모가정보다 편부가정의 청소년들이 지위비행이나 심각한 비행 모두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손가정 등의 기타가정에서는 양친가정보다도 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보다 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위비행이나 심각한 비행 모두 양친가정보다 결손가정에서 더 많이 저질러지며, 편모가정보다 편부가정에서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위비행은 양친가정보다 결손가정에서 비행이 더 많이 발생하지만, 편부가정보다 편모가정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각한 비행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손가정, 자녀양육, 그리고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분석

가정의 형태, 즉 결손가정에 따라 자녀의 비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그러한 차이는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결손가정과 비행간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인가, 매개관계인가 또는 허위관계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결손가정이 직접적으로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자녀양육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녀양육은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독, 자녀의 잘못에 대한 부모의 처벌 등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결손가정이 자녀양육과 자녀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가정적 측면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 청소년의 측면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통제요인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성별은 남자청소년을 0, 여자청소년을 1, 결손가정의 경우는 양친가정은 0, 결손가정을 1로 하는 가변인(dummy variable)으로 구성하였다.

〈표 4〉는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분석한 상관관계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결손가정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친가정보다 결손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손가정은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감독, 처벌과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친가정보다 결손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의 정도가 낮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며, 또한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는 지위비행이나 심각한 비행 모두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양친가정의 청소년들보다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비행을 더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간의 상관계수(N=879)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¹⁾	1.00									
(2) 연령	-.15***	1.00								
(3) 결손가정 ²⁾	.04	.01	1.00							
(4) 경제적 수준	-.03	-.18***	-.18***	1.00						
(5) 애착	-.04	-.13***	-.18***	.21***	1.00					
(6) 의사소통	.16***	-.06	-.06	.12***	.41***	1.00				
(7) 감독	.14***	-.08*	-.11***	.14***	.25***	.42***	1.00			
(8) 처벌	.03	-.19***	-.08*	.15***	.20***	.19***	.19***	1.00		
(9) 지위 비행	-.26***	.34***	.16***	-.09**	-.13***	-.15***	-.25***	-.18***	1.00	
(10) 심각한 비행	-.21***	.21***	.09**	-.12***	-.17***	-.19***	-.23***	-.13***	.61***	1.00

* : $p < 0.05$, ** : $p < 0.01$, *** : $p < 0.001$

1) 성별, 0: 남자, 1: 여자, 2) 결손가정, 0 : 양친가정, 1: 결손가정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의 유형인 애착, 의사소통, 감독, 처벌과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고, 자녀의 비행과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애착, 의사소통, 감독, 처벌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며, 자녀의 비행도 적은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성별의 경우, 성별과 부모의 자녀양육과의 관계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비행과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부모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행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연령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애착, 감독, 처벌과는 부(-)'의 관계, 비행과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연령이 많을수록, 부모의 애착, 감독, 처벌은 약화되며, 비행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양친가정은 결손가정보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으며, 결손가정보다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의사소통, 감독, 그리고 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며, 자녀의 비행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결손가정이 자녀의 양육과정 및 비행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5>는 결손가정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영향이 자녀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분석한 것이다. 제시된 값은 보통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으로 구한 표준화된 회귀계수(β -coefficient)이다. 이러한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하여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한 평가는 독립변수간 상호독립적이라는 가정에서만 유용하다(Fox, 1991).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손가정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므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결손가정이 자녀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자녀의 성과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결손가정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손가정은 자녀의 성별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4>의 상관관계분석과 비교하면,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과의 관계는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고, 애착과 감독의 경우에는 관계의 정도가 다소 약화된 것을 보여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경우에는 상관관계분석과 관계의 정도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의 성별 및 연령의 경우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손가정은 자녀의 성별 및 연령,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하여도 자녀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결손가정은 양친가정에 비하여 자녀와 부모간의 애착과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자녀양육에 대한 회귀분석

	애정	의사소통	감독	처벌
결손가정 ¹⁾	-.15***	-.04	-.09**	-.06
경제적 수준	.16***	.13***	.13***	.11***
성별 ²⁾	-.06	.16***	.15***	.02
연령	-.10***	.01	-.03	-.16***
R ²	.08	.05	.05	.05
F 비	19.88***	11.76***	12.73***	12.40***
사례수	976	991	992	985

* : $p < 0.05$, ** : $p < 0.01$, *** : $p < 0.001$

1) 결손가정, 0 : 양친가정, 1: 결손가정, 2) 성별, 0: 남자, 1: 여자

다음은 결손가정이 비행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6〉은 결손가정이 자녀양육 및 비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결손가정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모형(1)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 자녀의 성별 및 연령을 통제한 상황에서 결손가정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결손가정은 자녀의 비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성별 및 연령,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하여도 결손가정은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자녀의 성별 및 연령, 가정의 경제적 수준도 각각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친가정보다 결손가정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지위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형에 의한 지위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18%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각한 비행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의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는 결손가정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4〉의 상관관계분석에서 나타난 결손가정과 심각한 비행간의 정(+)의 관계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자녀의 성별 및 연령은 심각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형(1)에 의한 심각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8%정도로 나타났다.

〈표 6〉 자녀비행에 대한 회귀분석

	지위비행			심각한비행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결손가정 ¹⁾	.16***		.13***	.05		.03
경제적수준	-.01*		.03	-.08*		-.02
성별 ²⁾	-.21***		-.20***	-.19***		-.17***
연령	.30***		.28***	.15***		.14***
애정		-.07	-.05		-.11***	-.12***
의사소통		-.02	.01		-.07*	-.05
감독		-.21***	-.18***		-.15***	-.13***
처벌		-.10**	-.05		-.05	-.02
R ²	.18	.08	.22	.08	.07	.13
F비	53.29***	21.13***	33.49***	20.74***	18.91***	17.35***
사례수	997	962	955	997	962	955

* : $p < 0.05$, ** : $p < 0.01$, *** : $p < 0.001$

1) 결손가정, 0 : 양친가정, 1: 결손가정, 2) 성별, 0: 남자, 1; 여자

모형(2)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및 의사소통,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 등의 자녀양육방식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가정의 자녀양육 중에서는 감독과 처벌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과 잘못에 대한 처벌이 적절할수록 자녀의 지위비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이나 의사소통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형(2)에 의한 지위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8%로 나타났다. 심각한 비행의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과 의사소통, 그리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위비행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위비행에서는 부모의 감독과 처벌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심각한 비행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애착과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2)에 의한 심각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모형(3)은 결손가정, 가정 및 자녀의 특성, 그리고 자녀양육 등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결손가정은 가정 및 자녀의 특성, 그리고 자녀양육을 통제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성별 및 연령도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자녀양육 중에서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형(3)에 의한 지위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22%로 나타났다. 심각한 비행의 경우에는 결손가정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성별 및 연령,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과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3)에 의한 심각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1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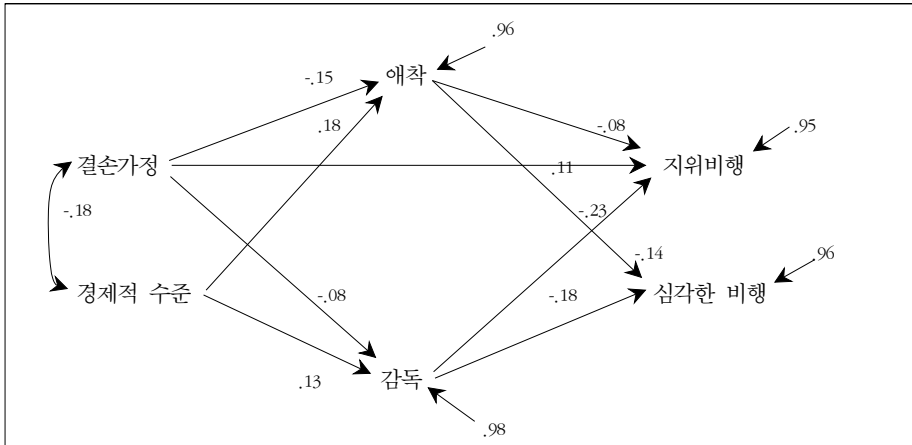
〈그림 2〉는 결손가정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간명하게 정리한 경로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손가정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그리고 가정의 자녀양육 중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그리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이 자녀의 지위비행 및 심각한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경로분석을 위하여 먼저 각각의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가정의 형태인 결손가정과 가정의 경제적 요인을 선행변수로 설정하고, 자녀양육의 유형인 애착과 감독을 매개요인으로, 그리고 자녀의 지위비행과 심각한 비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³⁾

결손가정은 자녀의 지위비행에는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지위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과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손가정은 자녀의 지위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녀양육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손

3) 앞에서 제시된 결손가정과 자녀의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자료가 16-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측정된 변수간의 인과관계는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결손가정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자녀양육에 선행하는 것으로 전제하고자 한다. 또한 16-18세 자녀의 자기보고식 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자녀양육과 비행간에는 인과관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양육이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이 안정적이었을 것으로 전제한다.

가정이 자녀의 심각한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손가정과 자녀의 심각한 비행간에는, 약하지만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표 6>의 회귀분석에서는 모형(1)이나 모형(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결손가정은 다른 통제요인이나 매개요인을 고려하면 자녀의 심각한 비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손가정은 자녀의 양육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심각한 비행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2〉 결손가정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경로분석결과



V. 맺음글

지금까지 결손가정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상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양친가정의 자녀들에 비하여 비행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변량분석에서 결손가정에 따른 자녀의 심각한 비행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관관계분석에서는 결손가정과 지위비행 및 심각한 비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둘째로 결손가정의 유형, 즉 편모가정과 편부가정에서 자녀의 비행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편모가정보다 편부가정의 자녀가 지위비행이나 심각한 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속가정 중에서 조부모와 살아가는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양친가정의 자녀보다도 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조손가정 청소년들의 활동성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로 성별에 따른 결손가정과 자녀비행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들은 결손가정에 따라 지위비행이나 심각한 비행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위비행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심각한 비행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결손가정이 지위비행이나 심각한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결손가정은 지위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심각한 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로 결손가정의 유형에 따른 차이에서 남자청소년은 편모가정보다 편부가정에서 비행이 많았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반대로 편부가정보다 편모가정에서 지위비행이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성부모와의 갈등, 즉 남자청소년들은 편부가정에서 아버지와의 갈등, 여자청소년들은 편모가정에서 어머니와의 갈등이 비행을 더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결손가정과 양친가정의 청소년들의 비행을 비교하여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결손가정여부가 자녀의 비행에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손가정은 자녀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이나 매개요인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사용한 결과, 결손가정은 자녀의 지위비행에 대해서는 직접적 영향,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통한 간접적 영향, 그리고 자녀양육을 통한 간접적인 매개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각한 비행에 대해서는 결손가정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자녀양육방식의 경우,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의사소통,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의 적정성

등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녀양육 중에서 애착과 감독이 청소년의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위비행에는 자녀양육방식 중에서 감독의 영향이 높았고, 심각한 비행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형태, 특히 결손가정 청소년들은 양친가정의 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을 더 저지른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현상은 결손가정으로 인하여 파생된 가정문제 및 적절한 자녀양육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결손가정 자체의 문제보다는 결손가정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및 사회화 등의 문제가 청소년 비행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결손가정을 생물학적 양친부모여부로 단순히 구분하고, 결손가정 중에서 편모 및 편부가정에 따른 분석이 미흡하였으며,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소 무리한 인과 및 매개관계를 설정하였다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인 생물학적 양친가정이 더욱 줄어들 것이며, 한부모가정이나 재혼가정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점에서 결손가정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가정에서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결손가정,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재가정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손가정의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가정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초래한다. 결손가정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과 보호, 그리고 사회화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유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에 있어서도 결손가정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양친가정의 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결손가정의 영향은 직접적인 효과와 자녀양육을 매개로한 간접효과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가정의 변화에 따른 범죄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는 가정환경이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의 범죄는 가정에서 시작되고 또한 가정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가족구성

원의 부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가정의 역할이다. 결손가정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육하고 훈육, 그리고 통제를 한다면 가족구성원의 부재는 비행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족구성원의 부재는 적절한 자녀양육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한 부재로 인하여 초래된 문제해결에 노력해야하고, 자녀도 또한 인식하고 노력한다면, 결손가정의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에서도 그러한 결손가정의 문제를 이해하고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국가에서도 결손가정 및 문제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결손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의 역할을 충분하게 한다면, 자녀의 비행이 줄어들 수 있으며, 또한 양친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자녀의 비행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결손가정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견해는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가정구조에서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결손가정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결손가정을 비난하기보다는 결손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비록 결손가정에서는 중요한 가족구성원의 부재에 의하여 가정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결손가정 스스로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부족한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확보하거나, 가족 구성원 스스로 부족의 문제를 가정 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기광도 · 이희길

2004. “가정환경이 자녀비행에 미치는 효과분석: 자녀양육의 매개과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5(4): 323-360.

김준호 · 김순형

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준호 · 김선애

1996. “가족의 구조 및 기능과 반사회적 행동,” 『형사정책연구』 25: 109-141.

김행자

1977. “결손가정이 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박성옥 · 신귀순 · 박정옥

2003. “결손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2(4): 403-416. 한국생활과학회.

유안진 · 이점숙 · 서주현.

2005. “가족 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 대한가정학회지 43(10): 91-102. 대한가정학회.

이성식

2003. “가정과 청소년 비행: 주요 이론들의 매개과정을 통한 검증.” 『형사정책연구』 55: 175-2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2007. “가족유대와 비행의 관계: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수정된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19(1): 277-304. 한국형사정책학회.

정기선 · 민수홍 · 이희길

2001. 「가족과 청소년비행」.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정소희.

2006. “가족구조, 부모양육행동 및 청소년비행: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0: 185-213. 한국사회복지연구회.

Berger, A.S., and W. Simon

1974. "Black Families and the Moynihan Report: A Research Evaluation," Social Problems 22: 145-161.

Browning, C.J.

1960. "Differential impact of Family Disorganization on Male Adolescence," Social Problems 8: 37-44.

Canter, R.

1982. "Family Correlates of Male and Female Delinquency", Criminology 20: 149-167.

Demuth, S., and S.L. Brown

2004.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 and Adolescent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 58-81.

Fagan, J., and S. Wexler

1987. "Family Origins of Violent Delinquents." Criminology 25: 643-669.

Fox, J.

1991. Regression Diagnostics. London: Sage Publications.

Glueck, S., and E. Glueck

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Gottfredson, M., and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Gove, W.R., and R.D. Crutchfield

1982. "The Family and Juvenile Delinquency." The Sociological Quarterly 23: 301-319.

Hennessy, M., P.J. Richards, and R.A. Berk

1978. "Broken Homes and Middle Class Delinquency", Criminology 15: 505-528.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Crime and the Family." In J.Q. Wilson(ed.), *Crime and Public Policy*.
San Francisco: ICS Press.

Monahan, T.P.

1957. "Family Status and the Delinquent Child" A Reappraisal and Some New
Finding." *Social Forces* 35: 250-258.

Morris, R.R.

1964. "Female Delinquency and relational Problems." *Social Forces* 43: 82-89.

Nye, F.I.

1958.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Wiley.

Patterson, G.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egon: Castalia.

Rankin, J.H.

1983.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Social Problems* 30: 466-479.

Rebellon, C.J.

2002. "Reconsidering the Broken Homes/Delinquency Relationship and
Exploring Mediating Mechanism(s)", *Criminology* 40(1): 103-135.

Rosen, L.

1969. "Matriachy and Lower Class Negro Male Delinquency." *Social Problems*
17: 175-189.

1985. "Family and Delinquency: Structure or Function." *Criminology* 23:
553-573.

Sampson, R.J., J.H. Laub

1995.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Snyder J., and G. Patterson

1987. "Family Interaction and Delinquent Behavior." In H.C. Quay(ed.),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Shaw, C.R., and H.D. McKay

1938. "Are Broken Homes a Causative factor in Juvenile Delinquency?" Social Forces 10: 514-524.

Weeks, H.A., and M. G. Smith

1939. "Juvenile Delinquency and Broken Homes in Apokane, Washington", Social Forces 18: 48-59.

Wells, L.E., and J.H. Rankin

1986. "The broken homes model of delinquency: Analytic issu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3: 68-93.

1988. "Direct Parental Control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6: 263-285.

1991. "Families and Delinquency: A Meta-Analysis of the Impact of Broken Homes." Social Problems 38: 71-93.

The Effects of Broken Home on Juvenile Delinquency

Ki, Kwang-D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empirically the effect of broken home on delinquency mediated through child rearing such as attachment and supervision.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broken home/delinquency relationship, there have been only a few systematic empirical studies on this relationship in Korea.

Broadly defined, a broken home consists of a family in which at least one biological parent is absent through death, desertion, divorce, or separation. In this study, I measure broken home using dummy variable: it is coded '0' if it is intact home, and '1' if it is broken home. Child rearing is operationalized as a composite variable of four indicators: attachment, communication, supervision, and punishment. Delinquency is divided into two types: status delinquency and several delinquency. And I include sex, age and family income as control variables in a series of multi-variate analyse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drawn from a self-reported survey conducted in Seoul, in 2000. The sample consists of a total of 1,012,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ged between 12 and 21.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broken home, child-rearing and self-reported delinquency, I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Overall,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juvenile from broken home are more prone to delinquency than are those from intact homes. And broken home has exerted a direct effect on delinquent behavior, and an indirect effect through the child rearing such as attachment and supervision. From my study, it is implied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evelop a more refined mod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nd crim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aegu University. Ph. D. in Sociology

❖ key words : family, broken home, child rearing, attachment, supervision,
crime, delinquency